

오프셋인쇄 견본 — 국판

산돌 정체 530, 530i

2019년 5월

(주)산돌
송미언×박수현×김초롱×심우진
!

「소나기」——황순원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잡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뻘히 들여다 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 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책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 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 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보이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걸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물 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 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를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 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뛴으면 좋겠다. 이 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짹짹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체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애.”

못 들은 체했다. 독 위로 올라섰다.

“애,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삼 마장쯤, 소년은 우대로 한 십 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니?”

벌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 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봐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새 ‘바보, 바보’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하는 걸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어 댈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저만큼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친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을 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다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 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숫단을 세워 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 봤으면.”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우밭으로 들어가, 무우 두 밑을 뽑아 왔다. 아직 밑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개 건넨다. 그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물어 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썩 깨문다.

소녀도 따라 했다.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아, 맴고 지려.”

하며 집어던지고 만다.

「꽃」——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현대문학, 1952

「서시」——윤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앞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

「인빅터스」(Invictus) —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 (William Ernest Henley)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Out of the night that covers me,
구덩이 속같이 어둡다 Black as a pit from pole to pole,
어떤 신에게도 정복되지 않는 영혼을 I thank whatever Gods may be
내게 주심에 나는 감사하리라 For my unconquerable soul,
가혹한 상황의 손아귀에서도 In the fell clutch of circumstance
나는 움츠러들거나 소리 내어 울지 않으리 I have not winced nor cried
운명의 막대기가 날 내려쳐 Under the bludgeonings of chance
내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굽히지 않으리 My head is bloody, but...
분노와 비탄 너머에 Beyond this place of wrath and tears
어둠의 공포만이 거대하고 Looms but the horror of the shade,
절박한 세월이 흘러가지만 And yet the menace of the years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으리 Finds and shall find me, unafraid.
지나가야 할 문이 얼마나 좁은지 It matters not how strait the gate,
얼마나 가혹한 벌이 기다릴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How charged with...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I am the Captain of my Soul.

「책」——이태준

책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루만지는 것인가? 하면 다 되는 것이 책이다.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책에게 너무 가혹하고 원시적인 평가다. 의복이나 주택은 보온만을 위한 세기는 벌써 아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이미 그렇거든 하물며 감정의, 정신의, 사상의 의복이요 주택인 책에 있어서랴!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그대는 인공으로 된 모든 문화물 가운데 꽃이요 천사요 또한 제왕이기 때문이다.

물질 이상인 것이 책이다. (중략) 서점에서는 나는 늘 급진파다. 우선 소유하고 본다. 정류장에 나와 포장지를 끄르고 전차에 올라 첫 페이지를 읽어 보는 맛, 전차길이 멀수록 복되다. 집에 갔다 한번 그들 사이에 던져 버리는 날은 그제는 잠이나 오지 않는 날 밤에야 그의 존재를 깨닫는 심히 박정한 주인이 된다.

가끔 책을 빌리러 오는 친구가 있다. 나는 적이 질투를 느낀다. 흔히는 첫 한두 페이지밖에는 읽지 못하고 둔 책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속삭여 주려던 아름다운 긴 이야기를 다른 사나이에게 먼저 해 버리려 가기 때문이다. 가면 여러 날 뒤에, 나는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는 한껏 피로해져서 초라해져서 돌아오는 것이다. 친구는 고맙다는 말만으로 물러가지 않고, 그를 평가까지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경우에 그 책에 대하여는 전혀 흥미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

빌려 나간 책은 영원히 노라가 되어 버리는 것도 있다.

이러는 나도 남의 책을 가끔 빌려 온다. 약속한 기간을 넘긴 것도 몇 권 있다. 그러기에 책은 빌리는 사람도 도적이요 빌려 주는 사람도 도적이란 서적 윤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일생에 천 권을 빌려 보고 999권을 돌려보내고 죽는다면 그는 최우등의 성적이다.

——무서록, 범우사, 1941

㉞ 주프랑스 대한민국 문화원

- 주소: 2 avenue d'Iéna 75116 Paris, FRANCE(*지하철 9번선 Iéna 역)
- 대표전화: +33-01-47-20-84-15/ +33-01-47-20-83-86
- 업무시간: 월-금, 09:30-18:00(*전시회가 있는 토요일은 14:00-19:00)

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남자 최종결과

- ▶ 윤성빈(대한민국 50.02, 종합 1위, 3:20.55) track record
- ▶ 니키타 트레기보프(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50.56, 종합 2위, 3:22.18)
- ▶ 김지수(대한민국 50.81, 종합 6위, 3:22.98)

「라틴 로만, 이탤릭」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1234567890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1234567890

¶ Twenty years from now you will be more disappointed by the things that you did do than by the ones you did do. —Mark Twain

¶ *Twenty years from now you will be more disappointed by the things that you did do than by the ones you did do. —Mark Twain*

§ Ligatures: fb ff ffi ffl fh fi fk fl/ *fb fh fk ff ffi ffl fh fi fk fl*

§ Swashes: *Queen Anna Lovely Jane Twinkling Hannah Smart Issac*

Narcissist Lucas Pudding & Mochi World Yogurt Zone Brilliant Cathy Elegant

Diana Victorious Fiona Russian Olympics Kick a Goal Ultimate Xavier

「라틴 확장 ① Western European」

Spanish ¿Cuáles “va más allá españoles Economía? Allí ha elección—por

French SNCF : le dit «ordonnances», dits prêts à la grève. côté qu'ils.

Portuguese O financiamento do governo inglês para esta investigação é

German Denn das Geld fließt nicht erhält dieser zunächst die Paydirekt-
Italian Muro dei grillini: «O Di Maio premier o nessun governo» Fico:
Dutch Al snel in het seizoen kampte de oud-internationaal van België
Catalan Si el Barça supera el Roma, jugarà dos partits per setmana fins a
Swedish Åklagaren: Tveksamt om det ens rör sig om ett brott. Hör
Danish Ung kvinde vidner mod Peter Madsen: »Hvis jeg havde sådan en
Finnish Sitä kaupakeskuspäällikkö Mervi Ahola ei paljasta, ketkä
Norwegian Det svenske brødreparet på fem og sju år, som fikk skylden
Icelandic Styrkupp hæð er 2.8 milljónir króna. Bolafjall er einn
Welsh Mae Papurau Newydd Cymru Arlein yn adnodd ar-lein di-dâl gan

「라틴 확장 ② Central & South Eastern European」

Albanian Shkarje të tokës e çarje të asfaltit në rrugën Kukës-Shishtavec.
Croatian Šaptač devama traži ljubav: 'Sinovi će se razveseliti ženi...' Tvoja
Czech Michelinský kuchař: Jinde se hvězdy rozdávají častěji. Nevím, co
Estonian Intressitõusu on oodata järgmisel aastal. H&Mi aasta algas
Hungarian A Shiwa ökoszisztéma minden megoldása könnyen illesztethető
Maltese(Malta) Biex jiproteggi lil Maria Efimova waqt li saħħqu li l-ħajja
Montenegrin Đurića povredili tokom otmice, u Kuršumliji mu ukazana
Polish Odważ się wrócić do szkoły. Spowiedź praktykującego alkoholika.
Romanian de 70 de ani: „De la TNB n-am primit nicio urare“
Slovakian Nezaplatená faktúra? Komunikácia bez výčítiek zachráni vzťahy
Slovenian Volitve: poslanci imajo še dva tedna časa. Predsednik republike

「그리스어, 러시아어」

Greek «Αναφορικά με συγκεκριμένες λύσεις, δεν καταλήξαμε σε κανένα
Cyrillic Пожар в торговом центре "Зимняя вишня" в Кемерово

오프셋인쇄 견본 — 국판

산돌 정체 630, 630i

2019년 5월

(주)산돌
송미언×박수현×김초롱×심우진
!

「소나기」——황순원

소년은 개울가에서 소녀를 보자 곧 윤 초시네 증손녀 딸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소녀는 개울에다 손을 잡그고 물장난을 하고 있는 것이다. 서울서는 이런 개울물을 보지 못하기나 한 듯이.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소년은 개울둑에 앉아 버렸다. 소녀가 비키기를 기다리자는 것이다.

요행 지나가는 사람이 있어, 소녀가 길을 비켜 주었다.

다음 날은 좀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이 날은 소녀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 세수를 하고 있었다. 분홍 스웨터 소매를 걷어올린 목덜미가 마냥 희었다.

한참 세수를 하고 나더니, 이번에는 물 속을 뻘히 들여다 본다. 얼굴이라도 비추어 보는 것이리라. 갑자기 물을 움켜 낸다. 고기 새끼라도 지나가는 듯.

소녀는 소년이 개울둑에 앉아 있는 걸 아는지 모르는지 그냥 날쌔게 물만 움켜 낸다. 그러나, 번번이 허탕이다. 그대로 재미있는 양, 자꾸 물만 움킨다. 어제처럼 개울을 건너는 사람이 있어야 길을 비킬 모양이다.

그러다가 소녀가 물 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 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벌떡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만 뺨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벌떡 일어섰다.

단발 머리를 나풀거리며 소녀가 막 달린다. 갈밭 사잇길로 들어섰다. 뒤에는 청량한 가을 햇살 아래 빛나는 갈꽃뿐.

이제 저쯤 갈밭머리로 소녀가 나타나리라. 꽤 오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그런데도 소녀는 나타나지 않는다. 발돋움을 했다. 그리고도 상당한 시간이 지났다고 생각됐다.

저 쪽 갈밭머리에 갈꽃이 한 움큼 움직였다. 소녀가 갈꽃을 안고 있었다. 그리고, 이제는 천천한 걸음이었다. 유난히 맑은 가을 햇살이 소녀의 갈꽃머리에서 반짝거렸다. 소녀 아닌 갈꽃이 들길을 걸어가는 것만 같았다.

소년은 이 갈꽃이 아주 보이지 않게 되기까지 그대로 서 있었다. 문득, 소녀가 던진 조약돌을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걸혀 있었다. 소년은 조약돌을 집어 주머니에 넣었다.

다음 날부터 좀더 늦게 개울가로 나왔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다. 다행이었다.

그러나, 이상한 일이었다. 소녀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는 날이 계속될수록 소년의 가슴 한 구석에는 어딘가 허전함이 자리 잡는 것이었다. 주머니 속 조약돌을 주무르는 버릇이 생겼다.

그러한 어떤 날, 소년은 전에 소녀가 앉아 물장난을 하던 징검다리 한가운데에 앉아 보았다. 물 속에 손을 잠갔다. 세수를 하였다. 물 속을 들여다보았다. 검게 탄 얼굴이 그대로 비치었다. 싫었다.

소년은 두 손으로 물 속의 얼굴을 움키었다. 몇 번이고 움키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 일어나고 말았다. 소녀가 이리로 건너오고 있지 않느냐.

‘숨어서 내가 하는 일을 엿보고 있었구나.’ 소년은 달리기를 시작했다. 디딤돌을 헛디뎠다. 한 발이 물 속에 빠졌다. 더 달렸다.

몸을 가릴 데가 있어 뛴으면 좋겠다. 이 쪽 길에는 갈밭도 없다. 메밀밭이다. 전에 없이 메밀꽃 냄새가 짜릿하게 코를 찌른다고 생각됐다. 미간이 아찔했다. 찻찻한 액체가 입술에 흘러들었다. 코피였다. 소년은 한 손으로 코피를 훔쳐내면서 그냥 달렸다. 어디선가 ‘바보, 바보’ 하는 소리가 자꾸만 뒤따라오는 것 같았다.

토요일이었다.

개울가에 이르니, 며칠째 보이지 않던 소녀가 건너편 가에 앉아 물장난을 하고 있었다.

모르는 체 징검다리를 건너기 시작했다. 얼마 전에 소녀 앞에서 한번 실수를 했을 뿐, 여태 큰길 가듯이 건너던 징검다리를 오늘은 조심스럽게 건넌다.

“애.”

못 들은 체했다. 독 위로 올라섰다.

“애, 이게 무슨 조개지?”

자기도 모르게 돌아섰다. 소녀의 맑고 검은 눈과 마주쳤다. 얼른 소녀의 손바닥으로 눈을 떨구었다.

“비단조개.”

“이름도 참 곱다.”

갈림길에 왔다. 여기서 소녀는 아래편으로 한 삼 마장쯤, 소년은 우대로 한 십 리 가까운 길을 가야 한다.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 본 일 있니?”

벌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 보지 않으련?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 봐도 멀다.”

“멀면 얼마나 멀기에? 서울 있을 땐 사뭇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소녀의 눈이 금새 ‘바보, 바보’할 것만 같았다.

논 사잇길로 들어섰다. 벼 가을걷이하는 걸을 지났다.

허수아비가 서 있었다. 소년이 새끼줄을 흔들었다. 참새가 몇 마리 날아간다. ‘참, 오늘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텃논의 참새를 봐야 할걸.’ 하는 생각이 든다.

“야, 재밌다!”

소녀가 허수아비 줄을 잡더니 흔들며 댕다. 허수아비가 자꾸 우쭐거리며 춤을 춘다. 소녀의 왼쪽 볼에 살포시 보조개가 패었다.

저만큼 허수아비가 또 서 있다. 소녀가 그리로 달려간다. 그 뒤를 소년도 달렸다. 오늘 같은 날은 일찍 집으로 돌아가 집안일을 도와야 한다는 생각을 잊어버리기라도 하려는 듯이.

소녀의 곁을 스쳐 그냥 달린다. 메뚜기가 따끔따끔 얼굴에 와 부딪친다. 쪽빛으로 한껏 갠 가을 하늘이 소년의 눈앞에서 맴을 돈다. 어지럽다.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 저놈의 독수리가 맴을 돌고 있기 때문이다.

돌아다보니, 소녀는 지금 자기가 지나쳐 온 허수아비를 흔들고 있다. 좀 전 허수아비보다 더 우쭐거린다.

논이 끝난 곳에 도랑이 하나 있었다. 소녀가 먼저 뛰어 건넜다.

거기서부터 산 밑까지는 밭이었다.

수숫단을 세워 놓은 밭머리를 지났다.

“저게 뭐니?”

“원두막.”

“여기 참외, 맛있니?”

“그럼, 참외 맛도 좋지만 수박 맛은 더 좋다.”

“하나 먹어 봤으면.”

소년이 참외 그루에 심은 무우밭으로 들어가, 무우 두 밭을 뽑아 왔다. 아직 밭이 덜 들어 있었다. 잎을 비틀어 팽개친 후, 소녀에게 한개 건넨다. 그리고는 이렇게 먹어야 한다는 듯이, 먼저 대강이를 한 입 베물어 낸 다음, 손톱으로 한 돌이 껍질을 벗겨 우썩 깨문다.

소녀도 따라 했다. 그러나, 세 입도 못 먹고,

“아, 맵고 지려.”

하며 집어던지고 만다.

「꽃」——김춘수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내게로 와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는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나는 너에게 너는 나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현대문학, 1952

「서시」——운동주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점 부끄럼이 없기를,
잎새에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1948

「인빅터스」(Invictus) — 윌리엄 어니스트 헨리 (William Ernest Henley)

나를 감싸고 있는 밤은 Out of the night that covers me,
구덩이 속같이 어둡다 Black as a pit from pole to pole,
어떤 신에게도 정복되지 않는 영혼을 I thank whatever Gods may be
내게 주심에 나는 감사하리라 For my unconquerable soul,
가혹한 상황의 손아귀에서도 In the fell clutch of circumstance
나는 움츠러들거나 소리 내어 울지 않으리 I have not winced nor cried
운명의 막대기가 날 내려쳐 Under the bludgeonings of chance
내 머리가 피투성이가 되어도 나는 굽히지 않으리 My head is bloody, but...
분노와 비탄 너머에 Beyond this place of wrath and tears
어둠의 공포만이 거대하고 Looms but the horror of the shade,
절박한 세월이 흘러가지만 And yet the menace of the years
나는 두려움에 떨지 않으리 Finds and shall find me, unafraid.
지나가야 할 문이 얼마나 좁은지 It matters not how strait the gate,
얼마나 가혹한 별이 기다릴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How charged with...
나는 내 운명의 주인이며 I am the Master of my Fate
나는 내 영혼의 선장이다. I am the Captain of my Soul.

「책」——이태준

책은 읽는 것인가? 보는 것인가? 어루만지는 것인가? 하면 다 되는 것이 책이다. 책은 읽기만 하는 것이라면 그건 책에게 너무 가혹하고 원시적인 평가다. 의복이나 주택은 보온만을 위한 세기는 벌써 아니다. 육체를 위해서도 이미 그렇거든 하물며 감정의, 정신의, 사상의 의복이요 주택인 책에 있어서랴! 책은 한껏 아름다워라, 그대는 인공으로 된 모든 문화물 가운데 꽃이요 천사요 또한 제왕이기 때문이다.

물질 이상인 것이 책이다. (중략) 서점에서는 나는 늘 급진파다. 우선 소유하고 본다. 정류장에 나와 포장지를 끄르고 전차에 올라 첫 페이지를 읽어 보는 맛, 전차길이 멀수록 복되다. 집에 갔다 한번 그들 사이에 던져 버리는 날은 그제는 잠이나 오지 않는 날 밤에야 그의 존재를 깨닫는 심히 박정한 주인이 된다.

가끔 책을 빌리러 오는 친구가 있다. 나는 적이 질투를 느낀다. 흔히는 첫 한두 페이지밖에는 읽지 못하고 둔 책이기 때문이다. 그가 나에게 속삭여 주려던 아름다운 긴 이야기를 다른 사나이에게 먼저 해 버리려 가기 때문이다. 가면 여러 날 뒤에, 나는 아주 까맣게 잊어버렸을 때 그는 한껏 피로해져서 초라해져서 돌아오는 것이다. 친구는 고맙다는 말만으로 물러가지 않고, 그를 평가까지 하는 것이다. 나는 그런 경우에 그 책에 대하여는 전혀 흥미를 잃어버리는 수가 많다.

빌려 나간 책은 영원히 노라가 되어 버리는 것도 있다.

이러는 나도 남의 책을 가끔 빌려 온다. 약속한 기간을 넘긴 것도 몇 권 있다. 그러기에 책은 빌리는 사람도 도적이요 빌려 주는 사람도 도적이란 서적 윤리가 따로 있는 것이다. 일생에 천 권을 빌려 보고 999권을 돌려보내고 죽는다면 그는 최우등의 성적이다.

——무서록, 범우사, 1941

「국문학」

중세 국어 연구자인 □□대학 ○○○교수는 조교 ×××와 함께, ‘ㅈ, ㅊ, ㅉ’을 치경음으로 표기하였으며, 치경음 뒤에 ‘ㅣ’계열 모음이 붙어도 구개음화하지 않은 것으로 표기하였다. ㅇ과 ㅍ, 모음 ㅏ, ㅣ, ㅡ는 생략, 파열음 계열 받침 ㄱ, ㄷ, ㄴ 따위는 불파음화를 반영하였다.

ㄱ ㄷ ㄹ ㄴ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ㄷ

「자연 과학」

프랑스 혁명 달력에서 1년은 한 달이 30일인 12달, 그리고 휴일인 5일 로 구성된다. 12달은 3달씩 4계절로 나뉘고, 계절마다 기후 특징에 따라 달의 이름이 정해졌다. 한편 한 달은 1주가 10일인 3주로 구성된다. 1년 365일 = (12달 × 30일) + 5일 = {12달 × (3주 × 10일)} - 5일 (『프랑스 혁명 달력』, 『박경미의 수학콘서트 플러스』, 동아시아, 2013)

페르마의 마지막 정리는 n 이 2보다 큰 자연수일 때 $a^n + b^n = c^n$ 을 만족하는 세 자연수 a, b, c 가 존재하지 않는다. 페르마는 디오판투스의 『산술(Arithmetica)』 문제 II-8 아래에 주석을 남겼다. (중략) 즉, 세 자연수 a, b, c 가 $x^3 + y^3 = z^3$ 을 만족하는 해라면, 타원곡선 $y^2 = x(x - a^3)(x + b^3)$ 을 만들 수 있다. (『수학사의 미해결 문제』, 같은 책)

[화학]…산소 O_2 , 물 H_2O , 이산화탄소 CO_2 , 아세트산 $C_2H_4O_2$

「감싼문자, 글머리표」

㉠주식회사 산돌

- <http://www.sandollcloud.com>, Mail: sdc@csmanager.co.kr
- 서울특별시 종로구 창경궁로 26길
- 고객센터 월~금 10:00~12:30, 13:30~17:00

㉞ 주프랑스 대한민국 문화원

- 주소: 2 avenue d'Iéna 75116 Paris, FRANCE(*지하철 9번선 Iéna 역)
- 대표전화: +33-01-47-20-84-15/ +33-01-47-20-83-86
- 업무시간: 월-금, 09:30-18:00(*전시회가 있는 토요일은 14:00-19:00)

① 2018 평창동계올림픽 스켈레톤 남자 최종결과

- ▶ 윤성빈(대한민국 50.02, 종합 1위, 3:20.55) track record
- ▶ 니키타 트레기보프(러시아 출신 올림픽 선수 50.56, 종합 2위, 3:22.18)
- ▶ 김지수(대한민국 50.81, 종합 6위, 3:22.98)

「라틴 로만, 이탤릭」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abcdefghijklmnopqrstuvwxyz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1234567890

The quick brown fox jumps over the lazy dog 1234567890

¶ Twenty years from now you will be more disappointed by the things that you did do than by the ones you did do. —Mark Twain

¶ *Twenty years from now you will be more disappointed by the things that you did do than by the ones you did do. —Mark Twain*

§ Ligatures: fb ff ffi ffl fh fi fk fl/ *fb fh fk ff ffi ffl fh fi fk fl*

§ Swashes: *Queen Anna Lovely Jane Twinkling Hannah Smart Issac*

Narcissist Lucas Pudding & Mochi World Yogurt Zone Brilliant Cathy Elegant

Diana Victorious Fiona Russian Olympics Kick a Goal Ultimate Xavier

「라틴 확장 ① Western European」

Spanish ¿Cuáles “va más allá españoles Economía? Allí ha elección—por

French SNCF : le dit «ordonnances», dits prêts à la grève. côté qu'ils.

Portuguese O financiamento do governo inglês para esta investigação é

German Denn das Geld fließt nicht erhält dieser zunächst die Paydirekt-
Italian Muro dei grillini: «O Di Maio premier o nessun governo» Fico:
Dutch Al snel in het seizoen kampte de oud-internationaal van België
Catalan Si el Barça supera el Roma, jugarà dos partits per setmana fins a
Swedish Åklagaren: Tveksamt om det ens rör sig om ett brott. Hör
Danish Ung kvinde vidner mod Peter Madsen: »Hvis jeg havde sådan en
Finnish Sitä kaupakeskuspäällikkö Mervi Ahola ei paljasta, ketkä
Norwegian Det svenske brødreporet på fem og sju år, som fikk skylden
Icelandic Styrkupp hæð er 2.8 milljónir króna. Bolafjall er einn
Welsh Mae Papurau Newydd Cymru Arlein yn adnodd ar-lein di-dál gan

「라틴 확장 ② Central & South Eastern European」

Albanian Shkarje të tokës e çarje të asfaltit në rrugën Kukës-Shishtavec.
Croatian Šaptač devama traži ljubav: 'Sinovi će se razveseliti ženi...' Tvoja
Czech Michelinský kuchař: Jinde se hvězdy rozdávají častěji. Nevím, co
Estonian Intressitõusu on oodata järgmisel aastal. H&M-i aasta algas
Hungarian A Shiwa ökoszisztéma minden megoldása könnyen illeszthető
Maltese(Malta) Biex jiproteggi lil Maria Efimova waqt li saħħqu li l-ħajja
Montenegrin Đurića povredili tokom otmice, u Kuršumliji mu ukazana
Polish Odważ się wrócić do szkoły. Spowiedź praktykującego alkoholika.
Romanian de 70 de ani: „De la TNB n-am primit nicio urare“
Slovakian Nezaplatená faktúra? Komunikácia bez výčítiek zachráni vzťahy
Slovenian Volitve: poslanci imajo še dva tedna časa. Predsednik republike

「그리스어, 러시아어」

Greek «Αναφορικά με συγκεκριμένες λύσεις, δεν καταλήξαμε σε κανένα
Cyrillic Пожар в торговом центре "Зимняя вишня" в Кемерово